

조던 클락슨은 필리핀이 중국을 96-75로 대파한 후 발표한 길라스 필리핀의 촐트 레예스 감독을 존경할 뿐입니다.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 일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선발되었으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가족과 조국을 위해." 클락슨은 토요일 밤 길라스가 중국을 상대로 21점 차 승리를 거두며 2023 FIFA 월드컵을 폐막한 직후 언론 관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레예스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길라스를 아시아 유일의 자동 출전권으로 이끌지 못한 후 월드컵에서 가장 악랄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유타 재즈 슈퍼스타는 60세의 필리핀 감독이 "잘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를 잘 모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2021년 NBA 올해의 여섯 번째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큰 존경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는 함께 만날 기회를 기다렸고, 한동안 게임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받은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과 (제가) 그를 위해 모자를 벗는 것뿐이에요. 오늘 그가 그렇게 결정했지만, 모두 사랑뿐이에요."

클락슨은 월드컵 기간을 34점 폭발로 마쳤고, 길라스는 예선 마지막 날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3점슛 5개를 쓰러뜨렸습니다.

필리핀은 토요일 경기 후 FIBA가 발표한 순위를 기준으로 월드컵에서 24위를 차지했습니다.[토토사이트 순위](#)

이 승리로 필리핀은 2019년 중국 포산에서 열린 대회 이후 월드컵에서 9연패를 당했습니다.